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초청강연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회, 아이들이 야생성을 어떻게 되살려줄까>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14-17시

1부 강연



[평촌아트홀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초청강연]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에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번째로, 첫 방문으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네요. 10년 전 방문했을 때 공간 민들레가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민들레의 트러블메이커로서의 역할 덕분인지, 교육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휴가철에 강연을 한다고 하면 교사가 한 5명이 왔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꼭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해거나 이것은 꼭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Floor 질문]

청중1 :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야생성을 길러줄 수 있는지. 말 잘 듣고 통제 잘 되는 아이들만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오감을 기를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청중2 : 저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일반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사인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통 ADHD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교사들이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 선생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청중3 : 저는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동기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나 수다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시작]



[아이들의 '내면의 야생성'에 대해 강조하는 크리스]

1. 잠들어버린 아이들의 감각을 어떻게 깨울까

지금 던져주신 세 가지 주제만으로도 오늘밤을 새우며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명강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강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온 게 있어서, 부분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입국한 날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었죠. 그때 새긴 문신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날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기도 해서 '세월호' 참사를 생각만 하면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저도 '잊으면 안 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억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참사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다시금 뜻을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질문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10대 청소년들의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 게임 외에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지만, 사실 질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오감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감각은 우리가 굳이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각이 폭발적으로 살아있어요.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전부 다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익힙니다. 때문에, '왜 이렇게 깨어있는 채로 태어난 아이들의 감각이 잠들어버리는가'가 더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쉽죠. 물이 얼질러지기 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길들여진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감각이 잠들어버린 이유는 감각이 계속 살아 있도록 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이며 현대에 들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2. 크리스의 유년기

제가 유년기를 보내던 시절의 제 감각은 깨어있었고 살아있었어요. 서울만큼 복잡하지는 않으나 저도 워싱턴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반면 저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매일같이 항상 집 밖에서 뛰어놀고 지냈어요. 만 3세 정도 되었을 때 나만의 텃밭도 키웠고요. 테이블만큼 손바닥만 한 텃밭에 불과했지만, 콩도 기르고 딸기도 기르면서 제 텃밭을 운영을 했습니다. 만 5세 정도가 되었을 때는 손수레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빈 소다병을 주워다 팔러 가면 병 당 2센트씩 주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죠. 5세만이 가질 수 있는 미인계를 사용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빈 병을 많이 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끌어 모았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날에는 노상에 갑판 대를 차려놓고 차가운 음료수와 캔디를 팔기도 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는 잔디 깎기 기계를 구입해 동네 이웃들의 잔디를 깎아주는 알바도 했고, 동네 주민들이 키우는 텃밭을 제가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큰돈을 만지기도 했는데, 항상 현찰이 주머니에 가득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생활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죠. 굉장히 지겹고 따분했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행히도 6시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이라는 것이 제 삶에서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지요.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어요. 엄마는 제가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먹을 때만 들어오면 됐습니다. 물론 시간 맞춰 들어와야겠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내가 책임 있게 제 자신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강변으로 가서 낚시를 했어요. 낚시터에 있는 나이 드신 강태공 할아버지들께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셨죠. 이를테면 지렁이를 끼워서 낚싯대를 던지기 전에 그곳에 침을 뱉으면 고기가 많이 몰려온다는 사실도 할아버지들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3. ‘내면의 야생성’이 잠들어버린 ‘길들여진 아이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유년기와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길들여진 아이들>입니다. 책에서는 ‘왜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의 혼, 불씨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 불씨를 저는 ‘내면의 야생성’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건 일종의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 혼령, 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이다보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아이들의 혼’을 특별히 지칭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야생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내면의 야생성’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지만 굉장히 취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생성이 굶게 되면, 혹은 우리가 그것을 굶기게 되면 죽지는 않지만 잠들어버립니다. 야생성이 먹는 것은 ‘풍부한 경험’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분만 과정에서부터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통제가 받으며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동기 자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이나 미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유년기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축화하고 있고 길들이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책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이

렇습니다. ‘유년기의 어떤 단계마다 어떤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 풀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책에 있는 몇 사례만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4. 부모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들테면, 오늘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훨씬 더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모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의 삶을 무척 통제하게 된 것은 ‘두려움’이 그 원인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아이를 향한 보호본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의 근간이 되는 두려움이 무엇이고, 부모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부터 파헤쳐봐야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제 어머니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모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메시지들이 거의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너무나도 끊임없이 많은 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고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부모인들 아이가 안전하지 않길 바라지는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너무 이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아주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는 유아와 아동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그런 유아안전용품 제조하는 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보험회사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놀이터 운영 업체에 소송을 하게 돼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이 제기가 되고, 언론도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데 한 몫을 해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언론에 노출이 되다보니 계속해서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와 항상 접속됩니다. 누군가 보호자 없이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으면 납치범에 노출이 된다는 식의 메시지에 항상 노출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유년기를 보냈을 때와 그렇게 크게 위험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위험 수준은 비슷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납치범은 있었고요. 가끔씩 유괴 사건이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도 유괴사건은 가끔 일어납니다. 최근엔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결국은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보다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의 아이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한 세상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인식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에 많이 달라있으므로 부모의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부모들로서 부모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가 가진 인식을 재고해 보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게 되었고 갖게 됐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들여다봐야 해요. 즉, 두려움을 토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두려움을 양산해내는 메시지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5. 내면의 야생성을 먹여 살리는 ‘놀이’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고 찰과상을 입거나 다치는 것까지 모든 예방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 내면의 야생성이 매일같이 먹고 자라야 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진짜 경험’이죠. 어른이 통제해서 만들어주는 경험이 아닌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험을 계속해서 아이가 해야 합니다. 심지어 넘어지는 것도 아이에게는 필요한 경험인데요. 그것은 위험을 어떻게 감지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나무가 있으면 아이는 올라야 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혹시 올라서 떨어지더라도 아이에게는 그것을 오르는 경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도전정신,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면 감각, 그 야생성은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면의 야생성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재료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야 합니다. 놀이에는 정말 각양각색이 있어요.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도 놀이에 속하죠. 그런데 내면의 야생성에게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특유의 놀이입니다. 더불어 우리 내면의 야생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이’가 그야말로 학습과 배움에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들이 충분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배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배움의 일부가 되는 놀이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시간상 그 근거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는 관계로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놀이가 배움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책에서 한 장을 할애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놀이는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놀이이죠. 그냥 재밌고 신이 나니까 하는 놀이이고, 왜 하는지 모르는 놀이입니다. 학습목표도 없으며, 신체를 이용하는 놀이인거죠. 게다가 대자연도 동원이 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놀이가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놀이를 아이들이 매일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6. 아이의 유년기를 훔친 ‘학교’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죠. 아이의 유년기를 학교가 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아국가에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도 봤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하는 그 압력은 무척 치명적입니다. 비유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압력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아이는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학교(미국 알바니 프리스쿨)에서도 아이들이 비디오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시간을 대부분 차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논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Facebook이 아닌 Face to Face로 노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질문해주신 선생님께서 문제제기 한 청소년들의 수동성은 그것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앓기 시작한 질병의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20-30대이고, 항우울제 복용률이 가장 높은 것도 20-30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전체에 우울증이라는 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원인은 바로 길들여진 유년기라고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 학교가 만든 표리표 ‘ADHD’

ADHD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물론 몇 마디 말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동기의 변화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ADHD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ADHD가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유아기를 보내는 걸 보면 아이들이 놀이가 들어있는 풍부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TV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자연을 접하지 못하거나 한 상태에서 교실 안에 갇히게 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한 몫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정서적인 문제가 선천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죠.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꿈에 그리는 ‘가만히 있는 말 잘 듣는 아이’도 있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50년 전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때문에 몸을 떤다고 해서 그 아이가 비정상으로 취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을 너무 성공적으로 길들여 놓다보니까. 길들여진 아이들을 다 수동적인 아이들로 대량생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서 새나간 아이들은 비정상이거나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ADHD라는 꼬리표도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교사가 보기에는 길들여진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독 가만히 있지도 않고, 지시도 듣지 않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교사가 ‘돌아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런 병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파헤쳐보면 날이 썰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저는 아이 문제가 아닌 학교의 문제이고 학교가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초반에 던져주신 세 질문으로 강연을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었네요. 감사드립니다.

1부 끝